

지속가능한 오프라인 시장을 위한 지침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모종린 지음

라이프스타일도 비즈니스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라이프스타일과 아울러 지역문화가 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로컬 자원과 결합했을 때 라이프스타일은 콘텐츠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일례로 커피문화의 산실인 시애틀에서 스타벅스가, 아웃 도어의 도시 포클랜드에서 나이가, 실용주의 라이프스타일이 자리잡은 알래스카에서 실용주의 브랜드 이케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지금은 클릭 한번이면 모든 게 배송이 되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시대다. 오프라인 상권 붕괴는 팬데믹이 가속화한 측면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양면이 있는 법.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욕망을 키웠다. 오프라인이 줄 수 있는 경험과 감성, 커뮤니티를 찾는다.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콘텐츠, 그것의 핵심은 바로 '로컬'이다. 지역특색이 있는 로컬 자원과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과 돈이 모이기 마련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펴낸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가치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주목한다. 그동안 모 교수는 '골목길 자본론',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와 같은 저서를 통해 로컬과 지역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특색이 있는 로컬 자원과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콘텐츠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감성과 경험을 선사한다. 사진은 스트리트 커피 테마의 커피전문점 모델 제주 성산본점. <알키 제공>

이번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이렇다. "사람들을 공간에 머물게 만드는 힘은 물건이 아니라 그곳에서 향유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있다. 로컬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와 달리 개성과 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MZ(밀레니엄Millennium+Z)세대 특성과 무관치 않다. 로컬은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특정 공간과 스타일이 녹아 있다. 문화재나 역사에서부터 건축물, 노포, 특산물 뿐 아니라 특정 제품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장인'도 연관돼 있다.

이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로컬경제 핵심은 지역자원과 문화, 커뮤니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이다.

저자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추구하는 가치, 지역만의 가치,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가치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문학적 세계관을 세우고 사회과학으로 지역과 상상하며 경영학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라는 의미다.

저자의 로컬 비즈니스 모델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앵커스토어 모델이다. 혁신성, 지역성, 문화성을 토대로 지역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다.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삶과 생활의 스타일을 판매하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을 짚을 수 있다. 특정한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미디어, 유통, 이커머스 등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고유의 산업이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생활권 구축으로 집약된다. 다양성을 산업과 일자리로 만들려면 '다름'이라는 자원은 필수다. <알키·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빨강 머리 앤과 함께하는 영어=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대표소설 '빨강머리 앤'을 해설과 함께 원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사랑한 시옷들' 쓴 영어 교육 전문가인 조이스 박은 고전 다시 읽기라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원서에 등장하는 현재적인 영어 표현들을 선별해 인용하고 해설과 설명을 해주면서, 문해 읽기를 통한 영어 교양 쌓기라는 실용적 깊이 이를 더했다. <북하우스·1만4500원>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미나 시인의 두번째 시집이다. 긴 시간 시집을 기다려온 독자들에게 답하듯 담백하면서 푸근한 언어와 완숙한 이미지가 오롯이 빛나는 아름답고 쓸쓸한 서정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시인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삶의 의미와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비·9000원>



▲이성민의 미래전망 2021=2018년부터 이코노미리뷰에 '이성민의 미래전망'을 연재하고 있는 이성민이 2020년 한 해 동안 연재한 칼럼을 모아서, 주제에 따라 내용을 나눴다. '퇴조하는 구대륙 신대륙'과 '대륙 패권전쟁' 등 총 2부로 구성된 책은 2020년 한 해 동안 전개된 글로벌 이슈가 전개되는 방향을 따라가며 2021년을

전망했다. <나무와열매·1만7000원>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오랫동안 임상 현장을 조사하며 질병과 죽음, 확률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의료인 류학자 이소호 마호와 평생 '우연'에 천착해온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가 주고받은 편지를 엮었다. 두 여성 학자가 주고받은 스무 통의 편지는 우연과 필연, 질병과 의료, 운명과 선택, 삶과 죽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개인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던진다. <다다서재·1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어쩌다 슈퍼스타=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잠을 자며 살아가는 나무늘보가 어느날 슈퍼스타가 됐다. 표영민 작가는 묵묵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보내는 나무늘보와 동물들을 멋대로 평가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합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준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즈는 지금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들의 시조가 되는 밴드 '퀵리맨'의 이야기부터 세계 최초로 미국 뉴욕의 대형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등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수록했다. <스폰북·1만2500원>

▲음악으로 세상을 바꾼 비틀즈='모두를 위한 예술가, 키스 해링의 낙서장'에 이은 예술가 시리즈 두번째 책이다.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등 네 명의 슈퍼스타가 모인 밴드 '비틀

▲고약한 아이들을 바깥 드립니다=바라바라 소리 지르는 말쑥쟁이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말쑥쟁이,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말쑥쟁이까지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버릇을 가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책은 영국 B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닥터 후'의 작가가 이 고약한 말쑥쟁이들을 위해 쓴 10편의 단편 동화로 구성됐다. 작가는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꿈터·1만2000원>

출근 전 1시간 동네 산책, 11개월 되니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었다

걷는 생각들

오원 지음

개나리, 목련, 벚꽃 등 앞 다투어 피는 꽃, 막 수줍은 씩씩 튀기 시작한 나무, 적당한 바람. 이 즈음 가끔 산책을 나가게 되면 만나는 풍경들이다. 요즘 동네 산책을 한다는 이들이 자주 만난다. 마음 맞는 이와 함께 걷기도 하지만, 홀로 걷는 이들이 많은 듯하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멀리, 많이, 여럿이' 대신 '가까이, 조금씩, 혼자'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이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전시회를 연 예술가이자, 글을 쓰는 오원이 펴낸 '걷는 생각들-오롯이 나를 돌보는 아침 산책에 관하여'는 걸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과 그 길에서 걸

어울린 생각들을 풀어낸 '산책의 기쁨'에 대한 책이다. 저자는 "산책은 나라는 우주를 만나는 여행"이라고 말한다.

매일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생계가 있는 저자는 어느 날 삶을 돌아보고 싶을 때 찾아간다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자고 마음 먹는다. 실제 그가 걸은 길은 800km에 이르는 프랑스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씩 동네 산책에 나섰다. 약 11개월 동안 814km를 걸었다. 그 전에도 늘 걸었던 길이었지만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이 되는 순간 무언가 달라져 있었고, 그 변화의 마음과 감정을 책으로 엮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걷는 걸음의 합이 그의 삶이자 인생"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아침에 걷는 행위는 나에게 우주의 한 존재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예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했고, 나는 생각보다 귀한 존재라는 기특한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다"고 말한다. 혼자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나, 과거의 나, 미래의 나와 결국 함께 걸었고 그 길에서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다.

저자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해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의 외부'에 집중하며 빙딩 숲으로 둘러싸인 회사 근처를 걷기도 한다. 가끔은 오로지 '걷기'를 위해 제주도 사려니 숲으로 떠나기도 하고, 북한산 둘레길을 '여럿이' 함께 걷기도 한다.

저자는 손으로 하루하루 걷는 거리를 쓰고 스티커도 붙여가며 나만의 '산책지도'를 만들고 음악을 동반자 삼아 걷는 즐거움을 누린다. 책에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패닉과 조동진의 노래, 류이치 사가모토의 음악 등 산책할 때 들은 음악도 함께 적었다. 또 헬렌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다니구치 지로의 만화 '산책', 프레데리크 그로의 '걷기, 두발로 사유하는 철학' 등 다양한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꼭 저자처럼 '아침산책' 일 필요는 없었다. 자신과 마주하며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산책'은 의미있는 일일 테니. 자신만의 '플레이 리스트'도 함께라면 더 없이 좋고. <생각정거장·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